

작품 내용

제 목	창작지럼
내 용	구름 한 조각, 스치는 바람 한 점 누군가의 땀으로 빗어낸 사유의 숲은 나무 한 그루, 잎사귀 한 장마다 누군가의 지문과 숨결이 촘촘히 새겨져 있다. 숲의 공기는 누구에게나 허락되지만 함부로 들꽃을 꺾어 낼 수 없다. 들꽃을 가져다 쓰려면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예의이다. 예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 우리는 울타리를 만든다. 그 울타리는 숲 자체를 막기 위함이 아니라 숲의 창작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함이다. 창작 생태계는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울타리를 넘는 순간 쇠약해진다. 무단 복제라는 도끼질에 숲이 훼손되지 않도록 숲에 따뜻한 햇살이 비칠 수 있도록 숲이 더 깊고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퍼뜨릴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는 안 된다.